

‘글로벌대학30 본지정 사활’ 광주·전남 평가 돌입

전남대 이어 오늘 3개 대학 면접
작년 탈락 전남대 절치부심 재도전
광주시 지원 바탕 ‘선택·집중’ 전략
전남 사업연합·목포대도 총력 대비

지역 대학의 생존이 걸린 글로벌대학 30 사업 본지정의 마지막 관문인 대면평가가 본격 시작됐다.

예비 지정된 광주·전남 지역 4곳의 후보 및 이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필사의 각오로 관문 돌파에 임하고 있다. 그나마 전남지역은 지난해 순천대가 선정되면서 부담이 덜하지만 광주는 올해도 탈락하게 된다면 대외적인 비난과 지역의 자존심 등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글로벌대학30 사업 마지막 단계인 본지정 현장 대면평가 심사가 실시된다. 광주와 전남에서 이번에 심사를 받는 대학은 △전남대학교 △대구보건대·대전보건대와 초광역으로 연합한 광주보건대 △목포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 등 모두 4곳이다. 이중 첫번째로 면

접을 보는 곳은 전남대다.

전남대는 지난해 글로벌대학30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이에 올해는 ‘지역과 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혁신대학’을 전략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광역 혁신공동체 구축 △에듀 생태계 혁신으로 기초학문과 인공지능(AI) 융복합 정주인재 양성 △지산 학병연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세계로 나아가는 대학혁신 성공모델 창출을 목표로 4대 분야 11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웠다.

20일 면접에 나서는 광주보건대 연합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 전문인력 양성’ 비전을 위해 ‘한달빛글로벌보건연합대학’ 설립으로 보건의료분야 아시아 넘버원 전문대학을 목표로 5대 추진 전략과 17개 추진 과제로 구성했다.

광주 지역대학의 파트너인 광주지역시 그간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광주시는 전남대와 광주보건대 연합이 ‘2024 글로벌대학30 공모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된 직후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남대·광주보건대 2개반, 28개 부서장, 광주테크노파크, 광주

연구원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글로벌대학 본지정 추진단’을 운영해 왔다.

특히 ‘글로벌대학 본지정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인공지능(AI)·미래차·광주다움통합돌봄 등 광주시 발전전략과 연계해 대학의 대표 과제를 분석하고 연차별 추진해야 할 세부 과제를 실행계획서에 담기 위해 10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다. 또 전남대·광주보건대와 함께 8월 대면평가에 대비해 평가 주관점에 기반한 예상질의 리허설 등 발표 준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전남지역의 목포대, 동신대연합도 20일 사활을 건 도전에 나선다.

목포대는 글로벌 그린해양산업의지·산·학 협력모델 구축, 산업 연계 인재 육성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을 내걸었다. 또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을 통해 지역 내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학령인구 급감, 대학정책 변화에 함께 대응함으로써 전남도와 상생하는 거점대학으로 발전한다는 계획이다.

동신대연합(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의 경우 지·산·학 일체형 지역 공공형

사업연합대학(UCC)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혁신기획서를 제출했다. 지역 공공형 사업대학은 지역 발전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대학으로 단일 정관과 단일 이사회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광역지자체와 대학, 기초자치단체, 지역혁신기관, 공기업, 지역기업이 연합이사회를 구성한다. 전남도 지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여기에 글로벌대학 통합 컨트롤타워인 UCC I(혁신) 캠퍼스, 기초지자체 중심의 연합캠퍼스인 UCC N 캠퍼스,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과 지역 학생들의 국제화 등 ‘인 & 아웃’ 동반성장을 위한 UCC G(글로벌) 캠퍼스 체제를 갖춘다.

지난해 순천대를 글로벌대학에 지정되도록 적극 지원한 전남도는 올해도 관내 대학을 위해 연초부터 대상 설명회 개최, 예비신청을 위한 혁신기획서 작성 지원 등을 진행했다.

또 모든 실국 및 출연기관과 함께 글로벌대학 전담 지원 조직인 ‘대학협력TF’를 본격 가동해 대학 역할을 보장할 연계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집중 지원에도 나섰다. 이 가운데 전남연구원, 전남테크노파

크 전문가를 중심으로 짜인 실행계획서 작성반은 지역 주력산업과 대학 특화 분야의 연계를 강화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국립목포대, 동신대와 함께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글로벌대학 발대식을 공동 개최해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지역 대학 육성 의지가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글로벌대학30의 선정은 선정 그 자체보다 탈락에 의미가 있다. 탈락 대학은 자생할 가능성마저 빼앗길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전남대의 경우 지난해 탈락한 뒤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충격도 상당했다. 만약 올해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충격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광주에서 이번에 글로벌대학이 선정되지 않는다면 그 과정은 광주 시에게도 전해질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면접은 대학 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매우 긴장되는 시험”이라고 덧붙였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광주는 365일 공사중...’

☞1면서 계속 서구 금호동에서 분식집을 하는 이계운(48)씨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차선이 한 개로 줄어들면서 가게 앞에 잠깐 차를 세워두고 음식을 포장해 가는 손님이 사라졌다.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세상인에게는 그마저도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장기화와 신축 아파트 공사가 겹치면서 안전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가운데 광주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은 40여곳이다”며 “공사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각 지자체나 관계 부서에 전달해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 현장 계도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토지 보상법 시행규칙 제 64조에 따라 공사로 인해 진출입로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 이상 상가 매출 감소 및 영업 부진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렵다”며 “1단계 구간 토목 공사는 올해, 2단계 구간 토목공사는 2028년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 불편 사항을 꾸준히 검토하며 빠르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읍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9일 도청 중무시실에서 ‘2024 읍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전남도 제공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 제출공고)

주식회사 은솔(이하 “갑”)과 주식회사 청명이엔지(이하 “을”)는 2024년 8월 16일 개최된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사업 영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 의무를 “을”이 승계하고 양 회사는 존속하며 합병 제530조의 9 제3항에 의거하여 출자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익이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관계 회사에 이익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 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4년 8월 20일

“갑” 주식회사 은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50
대표이사 이 상 진

“을” 주식회사 청명이엔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십자대리길 20(산북동)
사내이사 최 명 실

감동을 선사하는 공연문화의 선두주자

티켓마루

콘서트 뮤지컬 연극
티켓매매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1588-0766

초록1호~3호 태양광 발전시설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전소의 명칭
- 초록1호, 초록2호, 초록3호 태양광발전소

2. 발전소 위치
- 전남 나주시 봉황면 황용리 103-19, 103-53, 103-34

3. 사업 구역의 면적
- 9,210㎡

4. 발전사업의 내용
- 발전설비용량 : 1,200kW
(1호 350kW, 2호 350kW, 3호 500kW)
- 사업개시예정일 : 2027. 07. 01.
- 사업운영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

5. 발전사업신청자
- 고인선, 홍종근, 홍정기

6. 의견제출기간
2024년 08월 20일 ~ 2024년 08월 27일(7일간)

7. 의견제출방법
메일 : hds3388@daum.net
전화 : 061-323-5000
fax : 061-323-6000

발전사업허가신청에 관한 주민의견 요청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전사업의 명칭
: 선촌, 선촌1~4호 태양광발전소 (총 5개소)

2. 발전사업의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7-70, 7-71, 7-72, 7-73, 7-74, 7-81, 571, 산 24-12

3. 발전사업의 면적 : 10,593㎡

4. 발전설비용량
: 182kW * 2개 / 274.40kW * 2개 / 149.80kW 1개
총 1,062.60kW (5개 발전소)

5. 사업개시 예정일 : 2027년 12월

6. 발전사업 허가신청자
: 권준오, 권민철, 권정선

7. 의견 제출기간
: 2024년 08월 20일 ~ 2024년 08월 28일
(주말, 공휴일 제외 7일 간)

8. 의견 제출방법
: TEL 061-332-8086,
FAX 070-4009-4586,
E-mail daeyang0715@naver.com

발전사업허가신청에 관한 주민의견 요청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전사업의 명칭 : 다시동촌태양광

2. 발전사업의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 493-1, 503-1, 503-4, 503-9, 산110-3, 산111-2, 산111-9

3. 발전사업의 면적 : 9,345㎡

4. 발전설비용량 : 1mw급 1개소

5. 발전사업 허가신청자
: 주식회사 다시동촌태양광

6. 의견 제출기간
: 2024년 08월 20일 ~ 2024년 08월 26일 (7일 간)

7. 의견 제출방법
전 화 : 010-9871-2351
팩 스 : 0504-275-3370
E-mail : dslim0206@gmail.com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편선/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월)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